

#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이영설\*

이원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이혼의사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되었고, 분석결과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부부의사소통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를 경감하는 다양한 문화간 감수성 교육 실제와 부부의사소통의 지원방안에 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논의하였다.

## |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간 감수성, 이혼의사, 부부의사소통, 다문화가정

\* 주저자, 금강대학교 사회복지불교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 역대 최고(42,356건) 수준이었다가, 2006년부터 소폭 감소를 보이다가 2020년 결혼이민자는 168,594명 수준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12). 국내 결혼이민자는 중국 국적이 60,51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40,863명, 일본 13,315명, 필리핀 11,499명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7,883명, 인천 11,286명 등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12). 중국과 베트남 여성이 전체 이주여성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은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의 결혼율은 해당 국가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를 얻었을 때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서적인 준비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간 감수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를 경감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타문화의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문화간 감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김옥순,

1) 외국인 여성의 한국남성과의 결혼율은 해당 국가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를 얻었을 때,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대 말부터 베트남 내 한류가 시작되고, 2000년대 초부터 K-pop이 본격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 베트남 국민은 케이 드라마(K-drama)에 이어 케이팝 열풍까지 만들어냈다. 베트남인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안에 녹아 있는 진한 가족애와 우정, 사랑 등이 자기들 정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주간동아, 2016.12.23.).

2008; 2010), 타문화 집단과의 질적인 접촉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타문화를 접하면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 등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고 쉽게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김예랑·우수명, 2011). 또한 타문화와의 경험이 문화간 감수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김혜숙 외, 2012). 만족한 결혼생활의 요인으로서 다문화가정 한국 남편이 한국문화와 배우자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아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문화간 감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박주희·정진경, 2008), 문화간 감수성과 결혼만족도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상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져 대부분 짧은 시간에 성사되어 상대방의 문화와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결혼식하기 위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일'이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고, '2일'이 (20.9%), '8일 이상'은 (19.2%), '3일'(16.0%), '0일'(2.5%), 로 나타났다. '1일', '2일', '3일'을 합한 비율이 66.1%이며, '8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9.2%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전 만남의 횟수는 1에서 2번 만난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3에서 4번 만난 경우가 19.1%,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9.4%로 조사되었다(설동훈 외, 2017). 이는 국내 결혼과는 달리 국제결혼의 특징으로 결혼하기 전 만남은 서로에 대해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좋은 믿음과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가는 기회이다. 결혼할 상대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 일치도가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에서 박재규(2007)는 정보 일치도가 낮을수록 이혼 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과 이혼의사와의 관계는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이혼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박재규(2007)는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이혼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은 단지 언어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몸짓과 표정, 움직임, 목소리와 옷차림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비언어적인 의미들도 포함한다. 이렇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해석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문제만이 아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른 언어소통의 체계, 그리하여 부부 간과 가족 간의 관계적 성격도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부부간 공통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갈등의 잠재성이 높아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단지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른 언어소통 체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안현숙, 2012). 부부의사소통에서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론의 핵심은, 부부 간에 가치관이 변화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부부관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과 같은 과정적이고 맥락적인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조혜선, 2003). 또한 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경제적인 열악함과 성역할의 태도보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은 결혼대상인 한국인 남편과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문

화간 감수성과 부부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감수성과 부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 의사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간 감수성

감수성(sensitivity)이란 감성과 유사한 뜻을 가지며, 외부 세계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정도로, 공감, 몰입, 감정이입, 친밀성 등의 의미를 모두 내포한 개념으로 정의된다(강택구2018).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했을 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인식

함으로 적절히 대응함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정서적 준비 상태의 민감성 정도를 의미한다(Hammer, Bennett, & Wiseman, 2003; 김도경, 강택구, 2018; 김수림, 2019). 따라서 문화간 감수성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질적인 타 문화와 교류하는 데 있어 민족 중심주의를 초월함으로 문화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량으로 알려져 있다(Bennett & Bennett, 2004; 김수림, 2019). 이처럼 다른 문화와의 효과적 교류를 위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명은, 강택구, 2020).

문화간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를 용인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감정적 요구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결과를 도출하는 통합적 과정으로서 발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Bennett와 Bennett(2004)는 이러한 문화간 감수성의 발달 및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문화간 감수성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문화상대주의 관점으로 발달한다고 본다.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는 문화의 차이를 부정하는 문화 차이 부정, 차이는 인정해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 차이 방어, 그리고 문화 차이가 있어도 이를 경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 차이 최소화까지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을 지닌 경우 문화간 감수성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자문화 중심적 관점 또는 문화상대주의 관점 중 어떤 것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화간 감수성은 특히 다문화 수용 능력이나 의사소통 역량 등과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특성에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실증되고 있다. 즉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문화적 측면에서의 여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수진(2013), 김민경(2018) 등의 연구에서는 문화간 감수성이 증진되면 다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의사소통의 역량 또한 증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또한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명은, 강택구(2020)의 연구에서는 문화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이민자들의 문화수용성과 이민 생활 만족도가 증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문화간 감수성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발달하는 역량이며, 이러한 감수성 증진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 능력 증진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이혼의사

이혼 의사(divorce intention)는 혼인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녀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별거 또는 이혼을 심사숙고하고 결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주미연2010). 즉 이혼할 가능성에 관한 생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 발생의 잠재적인 요소부터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정하, 2015; 서영숙, 2016). 이런 점에서 이혼 의사는 이혼 결정 과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이혼 의사는 결혼을 파기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이혼이라는 행위는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혼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영숙(2016)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이혼 의사는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보았으며, 이혼 의사를 지니는 것은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되면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정보나 경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하며, 소송이나 청구서 등을 준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인 이혼

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민기연·이영선, 2020; 조윤희, 2020).

결혼이주여성들은 대개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고, 따라서 결혼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적응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이혼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김태량, 2019; 박정하, 2015). 실제로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이들의 이혼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이주여성들의 이혼 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미숙, 2019).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의사를 가지도록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연령, 경제력, 부부간 나이 차이, 자녀 유무,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김태량, 2019), 결혼만족도나 시 가족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는 가족관계 요인(민기연, 이영선, 2020; 손미향, 최희경, 2018; 현경자, 김정화, 2015) 등이 이혼 의사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물리적 특징보다는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들이 이주여성의 이혼 의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김태량, 2019; 임원선, 정혜원, 2019). 예컨대, 이주한 여성이 얼마나 민감하게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의 문화적 적응이나 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서적 교류 등과 같은 가족 내 적응의 측면이 대표적이다(고미숙, 2019; 김승일, 2016; 황해영, 김영순, 이춘양, 2018). 즉 물리적으로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배경 문화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인 남편과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을 보다 효율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경우에



는 결혼생활을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조윤희, 2020). 이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보다 잘 유지하고 이혼이라는 불행한 결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정서적, 적응적 측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규련, 1993; 최현실, 1998; 강유진, 1999; 오선주, 2000; 이혜경, 2005; 주미연, 2010; 김정순, 2012)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통제변수는 외재변수 중 하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자가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변수이다(Kerlinger and Lee 2000). 사용 이유는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종필, 2015).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종속변수인 이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그리고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3. 부부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특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칭하는 것으로, 대인 간의 의사소통은 한 개인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이를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속 의미를 자극하는 과정이다(Gottman, 2000; Lataillade, 2002). 즉 의사소통은 대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서로 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함으로써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이다(서영숙, 2016).

부부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상징적인 매개물을 활용하여 정보 및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정희 2019). 부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부부의 친밀성이 유지되고, 신뢰감이 증진되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 중심의 현대 사회에 있어 가정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Baucom, Epstein, 그리고 Lataillade(2002)는 건강한 부부와 부적응적 부부들 간의 차이점 중의 하나를 의사소통으로 꼽았다. 즉 건강한 부부들은 건설적인 부부 의사소통을 선택하는 반면, 부적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들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을 선택한 때에도 매우 빈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관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Gottman(2000)은 부부 의사소통은 이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혜원, 한소영, 그리고 이지연(2018)은 중년기 기혼 여성들의 부부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했고, 손영철과 전지은(2019)은 부부 사이에 대화시간이 길고, 이성과 감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대화의 유형을 활용하는 경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김정희(2019)도 기혼남녀의 결혼 만족 정도는 부부 의사소통의 양과 질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부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화, 2020; 정용균, 2020).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 간에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언어 장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극복해야 할 문

제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즉 두 사람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상이한 언어소통의 체계로 인해 충분한 부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된 언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갈등이 잠재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간의 부부 의사소통은 결혼에 대한 만족이나 이혼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화, 2020; 어드경체책, 2019).

실제로 이주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의사소통방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였던 반면 부정적 대화나 부정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결혼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희, 김영순, 전예은, 2013; 정용균, 2020). 심지어 한국어 사용에 능통하여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족 결혼이주여성도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규칙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남편과 부부 의사소통의 만족 정도는 다른 국적의 이주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순자, 2014). 특히 가부장 문화로 인해 부인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것을 부끄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남편들의 특징은 부부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도경, 강택구, 2018; 정용균, 2020).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남편과 부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김도경, 강택구, 2018; 손미향, 최희경, 2018). 또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규칙 등을 습득하기 위해 애쓰며, 대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한다(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2015). 그러나 한국인 남편들은 이와는 달리 지배적 태도를 유지하고 이주여성 아내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종의 회피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많이 사

용하는 등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 이주여성들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림, 2019; 손미향, 최희경, 2018).

이런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부부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한국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인정, 아내 모국에 대한 문화간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4. 문화간 감수성, 부부의사소통, 이혼의사 간의 관계

#####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 의사의 관계

결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는 이혼 의사, 나아가서는 이혼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민족이나 국적이 다른 다문화 부부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될 위험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부부들의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 의사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경자와 김정화(201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 도전과 이혼 의사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 도전이 높은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주여성의 이혼 의사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 결혼이주여성도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이혼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부부의 경우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나 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 이혼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김도경과 강택구(201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인 부인의 문화간 감수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들이 배타적인 문화간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문화적 특징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아서 의견 충돌이 많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명은과 강택구(2020)의 연구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혼생활과 여러 영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결혼에 대한 후회가 낮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정하(2015)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정도는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혼 이주로 인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무조건 한국문화에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적응하고자 하는 낮은 수준의 문화간 감수성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이혼에 대한 의사를 가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부부의 경우,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포용이나 이해 정도가 낮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결국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과 이혼 의사의 관계

결혼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결혼의 만족 정도를 떨어뜨리고 이혼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의사소통과 이혼 의사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인종

적 차이 등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간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

김정순(2012), 김인아(2017) 등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였고, 부부 의사소통은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은 의사소통의 양과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우 사소한 갈등도 해결이 어려워져 결국 이혼 의사 증가와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미숙(2019)은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경험 분석을 시도하여,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경험한 경우 이혼 의사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고 그중에서도 성관계와 관련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주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민기연과 이영선(2020)도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해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들의 이혼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반적인 예상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부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서로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남편의 가정 폭력과 외도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격차 등과 같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이혼 의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이혼으로 행동화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 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간의 문화적 배경이나 감성적 차이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정도는 의사소통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한국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 간 차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한국인 남편과의 의사소통 증진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문화간 감수성이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한국인 남편과의 긍정적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홍미기(2009), 이순자(2014) 등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탐색했던 연구를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잘할수록 부부 의사소통 또한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남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만족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이한우와 송형철(2015), 김인아(2017) 등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적응 능력 및 민감성은 한국인 남편과의 의사소통 및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도 의사소통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문화간 민감성은 부부 의사소통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인아, 2017; 최현미, 2014; 히로세·준꼬, 202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은 한국인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인 아내의 문화간 감수성과 부부 의사소통의 직접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감수성과 부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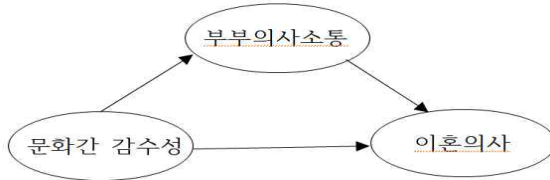
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돕기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연구모형으로는 독립변인으로 문화간 감수성, 종속변인으로는 이혼의사를 설정하였다. 또한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상정하여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를 부부의사소통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을 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였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혼이주여성들을 골고루 포함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당진, 태안, 보령, 익산 등을 조사지역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조사에 동의한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명확한 조사를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언어별 설문지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설문지는 중국(조선족), 일본, 북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영어 설문지는 필리핀, 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설문지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번역은 한국어와 해당 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어 설문지는 ITT 번역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조사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통역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 통역사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우선 한글로 작성하여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명확한 설문 내용 및 의미 전달이 정확한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각 언어의 전문 통역사와 출신국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설문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확정된 최종 설문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3주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400부이며, 이중 32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약 81.3%이다. 이중 설문 응답이 부실하거나, 중간에 빠진 응답이 많은 설문을 제외하고, 실제 본 분석에 활용된 설문은 총 313부이다. 수거된 설문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113부, 베트남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72부,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128부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에 대해 척도의 출처,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간 감수성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Chen과 Starosta(2000)에 의해 개발된 문화간 감수성 측정도구(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나는 대체적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안 그들에게 우호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 범주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58이다.

#### 2) 이혼의사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김순연(2012)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척도는 전체 5문항이며, '나는 자주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결혼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 '나는 나의 결혼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786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가자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나누는 과정이다(Pearson, 1989). 본 연구에서의 부부의사소통은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자신과 남편 사이의 놓인 다양한 정서적 및 현실적 문제와 차이를 지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소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의사소통 척도는 Bienvenu(1970)가 개발한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를 김오남(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체 4문항이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남편이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84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26.0과 AMO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섯째,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 전체 313명의 응답자 중 연령대는 20대와 50대가 14.7%, 30대가 32.9%, 40대는 35.8%으로 40대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8.6%, 중소도시 51.1%, 읍면지역이 40.3%,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54.6%, 대졸 22.7%으로 고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취업구분을 보면 전업주부가 49.2%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전 국적을 살펴 보면 필리핀 26.5%, 베트남 21.7%, 중국 19.2%, 북한 14.4%, 태국 9.6%, 일본 6.7%으로 필리핀의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이 가장 적었다. 결혼기간은 5~10년이 41.2%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 수는 1명이 40.9%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응답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응답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대	20대	46	14.7	결혼 전 국적	중국	60	19.2
	30대	103	32.9		베트남	68	21.7
	40대	112	35.8		필리핀	83	26.5
	50대	46	14.7		태국	30	9.6

거주 지역	60대 이상	6	1.9	결혼기간	일본	21	6.7
	대도시	27	8.6		북한	45	14.4
	중소도시	160	51.1		기타	6	1.9
	읍면지역	126	40.3		5년 미만	77	24.6
학력	무학력	4	1.3	자녀 수 (명)	5~10년 미만	129	41.2
	초졸	8	2.6		10~15년 미만	58	18.5
	중졸	57	18.2		15년 이상	31	9.9
	고졸	171	54.6		기타	18	5.8
	대졸	71	22.7		0	80	25.6
	대학원 이상	2	0.6		1	128	40.9
취업 구분	전업주부	154	49.2	2	96	30.7	
	전일제	85	27.2	3	8	2.6	
	시간제	74	23.6	4	1	0.3	
전체			313	100.0			

## 2.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문화적 감수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58, 부부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5, 이혼의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6이다.

<표 2> 신뢰도 분석

변수 및 세부 문항	문항 수	Cronbach's $\alpha$
문화 간 감수성	4	.758
부부 의사소통	5	.845
이혼의사	4	.786

측정항목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모든 항목들은 5 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문화 간 감수성 평균 2.97~3.84 점, 부부 의사소통 평균 3.42~3.88점, 이혼의사 평균 2.02~2.50점 등으

로 긍정적 변수인 문화 간 감수성과 부부 의사소통은 보통수준(평균 3.0점)을 상회하였고, 부정적 변수인 이혼의사는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요 측정항목들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은 각각 최대 0.59와 0.95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이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배병렬, 2009), 조사된 데이터는 정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화간감수성1	3.51	0.86	-0.33	0.28
문화간감수성2	3.41	0.77	0.11	-0.33
문화간감수성3	3.56	0.67	0.05	-0.23
문화간감수성4	3.35	0.79	0.19	-0.16
부부의사소통1	3.53	0.82	-0.25	-0.15
부부의사소통2	3.88	0.82	-0.26	-0.58
부부의사소통3	3.42	1.00	-0.04	-0.95
부부의사소통4	3.70	0.94	-0.57	0.46
부부의사소통5	3.64	0.88	-0.08	-0.45
이혼의사1	2.23	1.03	0.53	-0.49
이혼의사2	2.50	0.97	0.21	-0.71
이혼의사3	2.02	0.85	0.53	0.18
이혼의사4	2.18	0.96	0.32	-0.60

###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홍세희(2000)가 좋은 적합도 지수로 제안한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이후 집중타당

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측정항목의 표준화 계수 0.5 이상, 평균 분산추출값(AVE) 0.5 이상, 합성 신뢰도(CCR) 0.7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Gerbing & Anderson, 198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918, CFI=.937, RMSEA=.079 등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항목들과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CCR 0.7 이상, AVE 0.5 이상 등으로 집중타당도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Estimate		S.E.	C.R.	p	CCR	AVE
		비표준화	표준화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감수성1	1.000	.769				.808	.526
	문화간감수성4	.594	.580	.058	10.240	.000		
	문화간감수성3	1.277	.944	.098	12.994	.000		
	문화간감수성2	.641	.533	.069	9.327	.000		
부부 의사 소통	부부의사소통1	1.000	.589				.849	.532
	부부의사소통2	1.207	.711	.127	9.523	.000		
	부부의사소통3	1.405	.679	.148	9.522	.000		
	부부의사소통4	1.578	.814	.148	10.699	.000		
	부부의사소통5	1.500	.829	.142	10.565	.000		
이혼 의사	이혼의사1	1.000	.664				.842	.573
	이혼의사2	.992	.699	.093	10.656	.000		
	이혼의사3	.976	.790	.083	11.758	.000		
	이혼의사4	1.200	.859	.097	12.400	.000		

$\chi^2=175.419$ ,  $df=60$ , TLI=.918, CFI=.937, RMSEA=.079

다음으로는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상의 상관계수와 각 잠재변인의 AVE 제곱근( $\sqrt{\text{AVE}}$ )값을 비교하였다. 이 때 한 변수의 AVE 제곱근( $\sqrt{\text{AVE}}$ )값이 해당 변수가 관련된 상관계수들의 절대값

보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판별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간 감수성과 의사소통 간에 정(+)의 상관이 유의하였고, 부부 의사소통과 이혼의사 간에 부(-)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5〉 상관계수와 판별타당도 검증

	문화 간 감수성	부부 의사소통	이혼의사
문화 간 감수성	.725		
부부 의사소통	.215**	.730	
이혼의사	-.114	-.718***	.757

\*\*p<.01, \*\*\*p<.001

#### 4. 주요 변인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의사소통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서열변수인 연령대, 학력, 결혼기간, 자녀 수 등은 그대로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변수인 거주지역은 읍면을 기준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이 충청남도에 한정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구분은 전업주부를 기준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취업 구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적합도를 크게 저하시켜 취업 구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적합도의 경우 TLI .863, CFI .901, RMSEA .076 등으로 TLI가 다소 낮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를 얻기는 어려우며(Gefen & Straub, 2003), 모델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점



(Joreskog & Sorbom, 1984), 0.8 이상도 수용가능하다는 연구(최상민, 송광석, 2018) 등을 고려하여 0.8 이상도 수용가능한 정도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수들 중 거주지 변수가 이혼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B=-.176, p<.05$ ), 자녀 수 변수가 이혼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096, p<.05$ ), 읍면에 거주하고 자녀 수가 적을 경우 이혼의사가 더 낮음이 확인되었다. 주요변수의 경로를 살펴보면 문화 간 감수성은 부부 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B=.150, p<.01$ ), 부부 의사소통은 이혼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029, p<.001$ ). 문화 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B=.053, p=.510$ ), 간접경로의 부(-)의 영향이 유의하였으므로( $B=-.154, 95\%CI =-.247\sim-.057$ ), 문화 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의사소통이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도 좋아진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이혼의사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문화 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이혼의사를 감소시킨다.

〈표 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통제변수 직접경로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연령대 → 부부 의사소통	.020	.041	.032	.639	.523
거주지 더미_도시 → 부부 의사소통	-.085	-.086	.060	-1.411	.158
학력 → 부부 의사소통	.027	.045	.037	.727	.467
결혼기간 → 부부 의사소통	-.053	-.122	.028	-1.903	.057
자녀 수 → 부부 의사소통	.009	.015	.035	.257	.797
연령대 → 이혼의사	.005	.008	.036	.148	.883
거주지 더미_도시 → 이혼의사	-.176	-.126	.068	-2.574	.010
학력 → 이혼의사	.032	.037	.042	.755	.450

결혼기간 → 이혼의사	.050	.081	.031	1.582	.114
자녀 수 → 이혼의사	-.096	-.116	.040	-2.416	.016
주요변수 직접경로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문화 간 감수성 → 부부 의사소통	.150	.203	.048	3.090	.002
문화 간 감수성 → 이혼의사	.035	.034	.053	.659	.510
부부 의사소통 → 이혼의사	-1.029	-.733	.128	-8.022	.000
주요변수 간접경로	Estimate		Boot S.E.	Boot 95% CI	
	비표준화	표준화		LLCI	ULCI
문화 간 감수성 → 부부 의사소통 → 이혼의사	-.154	-.149	.046	-.247	-.057

$\chi^2=306.591$ ,  $df=110$ ,  $TLI=.863$ ,  $CFI=.901$ ,  $RMSEA=.076(.066-.086)$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그들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 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고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논의

본 연구에서 문화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이 높아졌으며, 부부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이혼의사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이혼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혼의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사소통은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의사를 완전 매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정도는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박정하(2015)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즉, 다문화 부부의 경우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간 감수성만으로는 이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반드시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감수성은 결혼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인에 비해 약한 영향을 미치고(성현란, 2011),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접근이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결혼생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Heller & Wood, 2000; 김영옥, 2007; 최정혜·김명주, 2012)과 맥을 같이 한다. 관련 연구들은 문화 관련 변인들의 강조가 자칫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겪는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을 ‘문화적 차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귀인시켜 버리는 문화 환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허재석, 2017). 이 중 하나가 부부간 의사소통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임성희, 2012), 결혼만족(이순자, 2014; 박은미, 2008; 최현미, 2014), 부부적응(홍미기, 2009)등 이혼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간 감수성은 부부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문화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홍미기(2009), 이순자(2014)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탐색했던 연구를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부부 의사소통의 관계는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 또한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문화간 감수성이 높을수록 이혼의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상호배타적인 태도를 통해 문화간 감수성이 낮은 경우 상호문화에 대한 수용이 낮아서 의견 충돌이 잦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결국에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은과 강택구(2020)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혼생활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이혼의사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의사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부의사소통은 문화간 감수성과 이혼의사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여 문화간 감수성이 증가할수록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이혼의사를 감소시킨다. 부부의사소통은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은 주미연(2010), 김정순(2012) 등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부의사소통은 이주여성의 이혼의도를 경감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언어는 부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소통 빈도와 질을 결정한다. 반면, 언어 장벽이나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혼 의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서비스는 기초적인 한국생활 적응에 초점을 둘 뿐 문화적 감수성이나 부부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원 중인 한국어 교육이나 전통문화 예절 교육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주여성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이혼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나 교육 등이 확

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문화 여성을 설정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제 문제들-남편의 무시, 시부모와의 동거와 지나친 간섭-을 논의하고, 다문화가족 내에서 아내로서의 새로운 역할모형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남편 하나 믿고 모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 치열하게 적응할 상황에 놓여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이들의 출신국을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들이 가정 내에서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수용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에 기반한 감수성 교육이며, 부부를 포함한 소통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출신 국가의 문화에 기반한 한국문화의 수용을 스스로 이루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비영리기관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필요하며, NGO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다원주의를 지향하여 다문화가정과 우리사회의 상호공존, 상호적응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합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합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지역적 범주를 충청남도에도 편중되게 조사하여 연구의 보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러 지역 특히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국내의 모든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 도구를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나, 결혼기간이 길지 않은 대상자들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질문 문항이 익숙하지 않은 설문 내용으로 응답의 신뢰도 문제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넣어 조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적을 경우 이혼의 의사가 낮게 나타났으나 후속 연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과 자녀수를 세분화하여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이혼의사에 영향을 주고 이혼의사를 감소시킨다는 점, 그리고 부부의사소통이 문화감수성과 이혼의사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밝혀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의사소통과 같은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요인의 매개효과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유미(2009).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숙(2019).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401-414.
- 김경화(2020).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2), 117-140.
- 김금희, 김영순, 전예은(2013).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의사소통에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언어와 문화, 9(2), 73-100.
-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2015).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02-214.
- 김도경, 강택구(2018).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 간 감수성을 매개로. 철학·사상·문화, 27, 212-244.
- 김민경(2018). 재일한인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화간 감수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림(2019). 다문화가정 한국남편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문화간감수성, 성역할고정관념,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영, 테레사편(2016).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화간 감수성의 관계에서 문화정체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585-607.
- 김순연(2013).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적요인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일(2016). 미등록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성 간의 혼인실태와 인권개선. 인문학논총, 42, 155-181.
- 김인아(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3), 53-74.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학회, 18(3), 63-106.
- 김옥순(2008).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사용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5(1), 45-67.

- 김예랑·우수영(2011). 국제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9, 155-184.
- 김정순(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57-73.
- 김태량(201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0, 5-38.
- 김태형(2016). 이혼위기 여성의 응집적 자기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8(1), 283-306.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김혜숙·이효영·박성미·임혁(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델파이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1(1), 155-175.
- 김혜원, 한소영, 이지연(2018). 중년기 기혼 여성의 성인애약 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행동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3), 267-297.
-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2017)
- 노충래, 김정화(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63(2), 207-231.
- 민기연, 이영선(202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다문화사회연구, 13(2), 143-174.
- 박미정, 엄명용(2015).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33-60.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1-20.
- 박정하(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심리적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정진경(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조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22(1), 1-21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손미향, 최희경(2018). 결혼이주여성과 이혼한 한국남성의 결혼 해체 경험에 관



- 한 연구. 여성학연구, 28(1), 113-154.
- 손영철, 전지은(2019). 기독교가정 부부의 대화시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3), 121-144.
- 서명숙, 김경신(2018). 여성의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77-104.
- 서영숙·정추영(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및 일터 영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 782-789.
- 성현란(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설동훈, 이계승(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설동훈, 한건수, 박순영, 심경섭(2017).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어드경제책(2019).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몽골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중독과복지, 3(1), 46-73.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8년)
- 오지혜(2015).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7(1), 233-270.
- 우종필(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한 연구모델의 분석: 채널연구에서 힘, 만족, 장기지향성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20(3), 43-62.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명신(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22, 207-266.
- 이명은, 강택구(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수용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간 감수성을 매개변수로. 인문사회21, 11(2), 1297-1312.
- 이수경(2017). 예비교사의 공감능력, 문화간 감수성, 다문화수용성, 다문화효능감 간의 관계. 교원교육, 33(2), 263-281.
- 이순자(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성 연구: 부부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미(2012).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의사소통 특징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2, 187-202.
- 이은주(2010).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5-71.
- 이한우, 송형철(2015).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 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6(2), 35-59.
- 임성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능력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선, 정혜원(2019). 이주여성의 결혼해체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8(2), 41-66.
- 안현숙·변상해(2012). 배우자 직업 유무가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 부부의 비교. 한국벤티창업학회, 7(2), 215-225.
- 양옥경·김연수·이방현(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연구원, 20, 229-251.
- 장준희(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하남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2010). 한국사회의 문화 간 감수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 연구, 11(4), 291-310.
- 정용균(2020).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2), 127-138.
- 조윤희(2020). 사회적 지지가 이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2), 1371-1384.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91-116.
- 주미연(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요인 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간동아(2016). 12월 23일.
- 최현미(2014).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5, 259-28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0년 12월호)
- 한수진(2013). 문화간 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재석(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상담, 7(1), 61~80.
- 현경자, 김정화(2015).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2), 203-236.
-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해영, 김영순, 이춘양(2018).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23), 909-927.
- 히로세, 준코(2020). 일본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전환학습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3(1), 1-34.
- Chen, G.-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Bienve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1), 26-31.
- Baucom, D. H., Epstein, N., & Lataillade, J. J. (2002).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Gurman, A. S., & Jacobson, N. S.(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26-58. New York: Guilford Press.
- Bennett, I.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Ed.),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London: Sage Publication.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2), 186-192.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2-443.

Abstract

The Influence of Migrant Women's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Divorce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Lee, Young Seol  
(Geumgang University)

Lee, Won Shik  
(Geum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mmigrant women's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divorce intentions,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13 migrant women residing in Korea after marrying Korean men, and data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at the inter-cultural sensibilities of immigrant women influenced the intention to divorce through marital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rcultural sensibiliti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intention to divorc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is indirectly through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marital communication completely mediates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divorce intention of migrant wo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various inter-cultural sensibility education practices to reduce the intention of divorce of immigrant women, implications for support plans for marital communication,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Intercultural Sensitivity, Divorce Intention,  
Marital Communication, Multicultural Families

논문신청일: 2021.04.15.

논문심사일: 2021.04.21.

게재확정일: 2021.04.24.